

## 보상수혜자에 따른 취학전 아동의 욕구만족지연 효과의 차이

정영숙 손자경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욕구만족 지연 상황에서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자신에게 생기는 득을 위한 자기통제와 아동이 좋아하는 타인(예:어머니)에게 생기는 득을 위한 자기통제 효과 정도를 살펴보았다. 실험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면 더 많은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48명의 취학전 아동의 반에게는 실험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면 아동의 어머니가 더 많은 보상을 받도록 하였고, 나머지 반에게는 자신이 더 많은 보상을 받도록 하였다. 보상의 수혜자가 어머니와 아동 자신인 두 집단을 각각 두 하위 집단으로 나누어, 한 집단의 아동들에게는 기다리는 동안 보상의 종결적 속성에 주목하도록 하였고 나머지 집단의 아동들에게는 보상의 비종결적 속성에 주목하도록 하였다. 실험 결과, 보상의 수혜자가 자기일 때 보상의 종결적 속성에 주목하도록 했을 경우보다 보상의 비종결적 속성에 주목하도록 했을 때 아동들은 더 오래 기다렸다. 반면에 보상의 수혜자가 어머니일 때에는 보상에의 주목 양상에 관계없이 아동들이 모두 오래 기다렸다. 타인에게 생기는 득을 위한 어린 아동의 자기통제의 증진을 보여준 연구 결과들 토대로 자신의 득을 위한 자기통제의 한계성과 자기통제의 주요 원천으로서 아동에게 중요한 타인에게 생기는 득에 관해 논의하였다.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라든지 “苦盡甘來” 라는 격언은 우리의 삶에서 바람직한 성과는 즉각적 충동을 억제하거나 고통을 참아낸 후에야 달성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이처럼 자기통제(self-control)란 개인에게도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는 어떤 행동(표적행동)과 그 행동의 실행을 방해하는 요인(예:충동, 유혹, 지루함 등등)이 있을 때, 방해요인의 영향을 제어하고 표적행동을 실행하도록 자신을 규제하는 것이다(정영숙, 1994, p. 6).

사람들이 자신에게 생기는 득을 위해서 자기통제를 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생기는 득을 위해서도 자기통제를 하는 일상적 관찰을 출발점으로 하여, 자기에겐 중요한 타인에게 생기는 득을 위한 어린 아동들의 자기통제의 효과를 경험적으로 확인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타인에게 생기는 득을 위한 자기통제 효과에 관한 연구는 자기통제가 전형적으로 자기에겐 생기는 득을 위한 것으로 개념화된 서구의 시각(Eisenberger & Adornetto, 1986; Hartig & Kanfer, 1973;

Kanfer & Zich, 1974; Karniol & Miller, 1983; Mischel, 1974; Mischel & Patterson, 1976; Skinner, 1953; Toner, Moore, & Emmons, 1980; Tuckman & Sexton, 1990)에서, 타인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개인의 자기통제 측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초보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생기는 득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생기는 득을 위해서도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경우들을 자주 관찰할 수 있다. 특히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에게 중요한 타인을 위해서 자기통제를 잘 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모르는 타인 보다는 자기의 어머니(예:황영조 선수의 경우), 자기의 자녀, 또는 자기의 애인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기꺼이 실행하는 경우를 흔하게 본다. 지루한 과제를 수행하면 보상이 생기는 경우에, 취학전 아동들은 보상의 수혜자가 자신이 모르는 낯선 아이일 때보다 자신의 친한 친구일 때 그 과제를 더 오래 수행하였다(Kanfer, Stifter, & Morris, 1981).

정영숙(1994)은 어머니는 일반적으로 아동이 필요로 하는 정신적 물질적 자원을 공급하며, 아동을 사랑하는 사람이며 동시에 아동이 사랑하는 대상(Erikson, 1963; Zahn-Waxler, Radke-Yarrow, Wagner, & Chapman, 1992)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 아동에게 중요한 타인으로서의 어머니에게 생기는 득을 위한 자기통제의 효과를 입증하는 일련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민학교 5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정영숙, 1994)에서, 아동들은 자기에게 선물이 생기는 경우보다는 어머니에게 선물이 생기는 경우에 지겹고 힘든 과제를 더 오래 지속하였다(실험 1). 뿐만 아니라 참을성있고 착한 어린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때보다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지겹고 힘든 과제를 더 오래 수행하였다(실험 2). 자신에게 생기는 득을 위해서보다 어머니에게 생기는 득을 위해서 자신이 체험하는 고통을 더 잘 참아낼 수 있다는 사실은 취학전 아동들에게서도 얻어졌다. 힘든 자세로 한 팔로 무거운 것을 오래 들고 있을수록 자신에게 더 많은 보상이 생기는 경우보다 무거운 것을 오래 들고 있을수록 어머니에게 더 많은 보상이 생기는 경우에 취학전 아동들은 무거운 것을 더 오래 들고 있었다(정영숙과 김은경, 원고).

취학전 아동의 자기통제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욕구만족 지연 상황에서 수행되었다(Miller, Weinstein, & Karniol, 1978; Mischel, 1974, 1981; Mischel & Baker, 1975; Mischel & Ebbesen, 1970; Mischel, Ebbesen, & Zeiss, 1972; Mischel & Moore, 1973, 1980; Mischel & Underwood, 1974; Moore, Mischel, & Zeiss, 1976; Schwarz, Schrage, & Lyons, 1983; Yates, Lippett, & Yates, 1981; Yates & Mischel, 1979). 이는 미래에 생길 더 큰 보상을 위해 당장에 누릴 수 있는 작은 보상에 대한 욕구만족을 지연하는 것은 사회화 과정에서 습득되어야 할 중요한 자질 중의 하나라는 점 이외에(Eisenberger & Adornetto, 1986; Mischel, 1974; Mischel, Shoda, & Rodriguez, 1989), Mischel과 Ebbesen(1970)의 욕구만족지연 패러다임이 특히 취학전 아동들에게 적합한 실험적 조작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취학전 아동의 전형적인 자기통제 상황인 욕구만족지연 상황에서 보상의 수혜자에 따른 자기통제의 효과를 살피려는 본 연구는 힘든 일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취학전 아동의 자기통제(정영숙과 김은경, 원고)의 연구와 함께 자기통제를 증진시키는 원천으로서 아동에게 중요한 타인에게 생기는 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수렴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이타성은 나이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Mussen & Eisenberg

-Berg, 1977), 특히 학교에 입학한 후에는 학교 교육에 따른 사회 규범과 도덕 규범의 영향 등으로 이타적 행동이 어른들의 요구에 순종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타인에게 생기는 득을 위한 욕구만족의 지연 효과를 살피는 본 연구에서 취학전 아동을 피험자로 삼은 것에는 취학전 아동이 이런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을 집단이라는 부수적인 이유가 있었다.

보상의 수혜자가 자기인 경우와 어머니인 경우에서의 욕구만족의 지연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본 연구에서는 보상에 대한 두 가지 주목 유형을 조작하였다. 보상에 대한 두 가지 주목 유형을 구분한 것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보상을 사용한 선행 연구들에서 보상에 대한 주목 양상에 따라서 욕구만족의 지연 효과가 달랐기 때문이다. 욕구만족 지연 상황에서 보상에 대한 주목 효과를 검증하려 했던 선행 연구 결과들은 지연 보상에 주목하게 하는 것이 언제나 욕구만족의 지연을 증진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지연 보상이 눈앞에 제시되거나(정영숙, 1984; Karniol & Miller, 1983; Mischel & Ebbesen, 1970; Mischel, Ebbesen, & Zeiss, 1972; Schack & Massari, 1973; Toner, Moore, & Emmons, 1980; Toner & Smith, 1977; Yates & Mischel, 1979), 그림으로 된 보상을 실물로 생각하게 하거나(Mischel & Moore, 1973, 1980), 보상의 충동적 속성에 대해 생각하게 했을 때(Mischel & Baker, 1975; Mischel & Moore, 1980; Moore, Mischel, & Zeiss, 1976)에는 아동들은 잘 기다리지 못하였다. 반면에 실물로 된 보상을 그림으로 생각하게 하거나, 보상의 추상적인 속성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경우에 아동들은 잘 기다렸다(Mischel & Baker, 1975; Mischel & Moore, 1973, 1980; Moore, Mischel, & Zeiss, 1976).

이 결과들을 정리해 보면, 보상에 대해 주목하게 하는 유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짐을 알 수

있다. 한 유형은 보상에 대해 먹고 싶은 충동을 고조시키면서 보상에 주목하게 하는 것이며, 다른 한 유형은 보상에 대해 먹고 싶은 충동을 고조시키지 않으면서 보상에 주목하게 하는 것이다. 전자는 보상에 대해 종결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consummatory ideation)이며, 후자는 보상에 대해 비종결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nonconsummatory ideation)이다. 선행 연구에서 보상의 수혜자가 자신인 경우에는 보상을 눈앞에 제시하거나, 그림으로 제시된 보상을 실물로 생각하게 하거나, 보상의 충동적 속성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것은 모두 아동으로 하여금 보상에 대해 먹고 싶은 충동을 고조시키는 종결적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조건들이다. 그리고 실물로 된 보상을 그림으로 생각하게 하거나, 보상의 추상적인 속성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것은 아동으로 하여금 보상에 대해 먹고 싶은 충동을 고조시키지 않으면서 보상에 주목하게 하는 즉, 보상에 대해 비종결적으로 생각하도록 만드는 조건들이다.

보상에 대한 주목과 욕구만족 지연에 관한 선행 연구의 결과들을 요약해 보면, 보상에 대해 종결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방법들은 욕구만족의 지연을 방해하였지만 보상에 대해 비종결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방법들은 욕구만족의 지연을 증진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신이 이용할 보상에 대해 종결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먹고 싶은 충동이 고조되며, 먹고 싶은 충동이 고조되면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개인에게 일종의 욕구좌절이 될 수 있다(Amsel, 1958). 욕구좌절은 불쾌한 상태이므로 개인은 이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다림을 중지하게 된다(Mischel, 1974; Mischel & Ebbesen, 1970). 반면에 보상에 대해 비종결적으로 생각하는 상황은 먹고싶은 충동을 덜 일으키는 상황이므로 덜 혐오스러운 상황이 되어 오래 기다릴 수 있다.

보상의 수혜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그 수

해자가 자신인 경우에 비하여 먹고 싶은 충동이 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점에서 보상의 수혜자가 어머니인 경우에 보상에 대해 종결적으로 생각하든지 비종결적으로 생각하든지간에 관계없이 욕구만족의 지연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즉, 어머니의 보상에 대해 종결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먹고 싶은 충동을 크게 일으키지 않으면서 목표에 주목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보상의 수혜자가 자신인 경우에는 보상에 대해 종결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조건의 아동들이 비종결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조건의 아동들보다 덜 기다릴 것이지만, 보상의 수혜자가 어머니인 경우에는 보상을 종결적으로 생각하든지 비종결적으로 생각하든지 관계없이 아동들 모두 오래 기다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방 법

피험자. 연령이 만 5년에서 6년 5개월까지인 62명의 취학전 아동(소년 33명, 소녀 29명)이 실험에 참가하였다. 62명의 아동 중에서 즉각 보상을 받을 것을 선택했거나, 기다리는 것과 보상과의 연계성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실험자가 지시한 내용을 생각하지 않았던 아동 14명의 자료를 제외한 48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각 조건에는 각각 12명 씩의 아동들(소년 6명, 소녀 6명)이 할당되었다. 이들 아동의 평균 연령은 소년 5년 11개월, 소녀 5년 11개월이었다.

실험설계. 실험설계는 2 (보상의 수혜자) X 2 (보상에 대한 생각 유형) 이요인 설계이었다. 보상의 수혜자로는 자기와 어머니의 두 조건이었다. 그리고 보상에 대한 생각 유형에는 보상에 대해 종결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경우와 비종결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두 경우가 있었다. 종속변인은 실험자를 부를 때까지 아동이 기다린 시간으

로, 아동이 기다릴 수 있는 최대 시간은 30분이었다.

절차. 절차는 Mischel과 Baker(1975)의 연구에서 사용된 절차를 기본으로 하여 과제와 지시를 약간 변형시켰다. 전체 절차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아동이 실험실로 오면 실험자와 함께 잠시동안 놀이를 한 후에, 아동들로 하여금 기다려야 얻을 수 있는 두 개의 보상(지연 보상)과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는 한 개의 보상(즉각 보상) 중에서 어느 하나의 보상을 선택하게 하였다. 기다려서 두 개의 보상을 얻겠다고 선택한 아동에게는 기다리는 동안 보상을 보면서 생각하고 있어야 할 내용(종결적 생각이나 비종결적 생각)을 말해 주었다. 실험자는 실험실을 나간 후 아동이 종을 울려서 그만두었을 때, 또는 지정된 시간(30분)이 지났을 때에 돌아와서 해당되는 보상을 주고 사후 면담을 하였다.

먼저, 아동이 실험실로 들어오면 실험자는 아동과 rapport형성을 위해 다음의 두 가지 놀이를 하였다. 첫번째 놀이는 '종치기 놀이'였다. 이 놀이는 실험자가 밖에 나가 있다가 아동이 종을 치면 실험자가 다시 실험실로 돌아오는 것을 3회 반복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아동이 종을 치면 실험자가 언제든지 돌아온다는 것을 아동에게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 것이었다. 실험자와 아동이 함께 한 두번째 놀이는 '그림찾기 놀이'였다. 그림찾기 놀이는 아주 많은 인물들이 그려져 있는 그림책에서 어떤 특정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었는데, 잠시동안 실시한 후에 나머지 그림찾기는 나중에 실험자가 돌아온 후에 다시 계속할 것이라고 말해 주면서 실험자가 실험실을 나올 때 들고 나왔다.

두 가지 놀이가 끝난 후에 실험자는 한 개의 보상이 담긴 접시와 두 개의 보상이 담긴 접시의 두평을 벗기며 기다림과 보상과의 연계성을 알려

주었다. 보상의 수혜자가 자기인 경우에는 실험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면 자기가 보상을 두 개 얻게 되고, 기다리지 않거나 증도에 그만두면 보상을 한 개 얻게 된다는 것을 아동에게 알려주었다(자기 보상 취득 조건). 보상의 수혜자가 어머니인 경우에는 실험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면 어머니에게 보상을 두 개 갖다줄 수 있고, 기다리지 않거나 증도에 그만두면 어머니에게 보상을 한 개 갖다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아동에게 알려주었다(어머니 보상 취득 조건). 어머니 보상 취득 조건의 경우에는 기다리는 것과 어머니가 받을 보상과의 연계를 설명하기 전에 아동에게 어머니가 아동이 아플 때 돌보아 주시고 아동이 좋아하는 맛있는 것을 많이 사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어 어머니에게 보상을 갖다드릴 마음이 들도록 유도하였다.

자기 보상 취득 조건과 어머니 보상 취득 조건에서 실험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받을 수 있는 두 개의 보상(포도 마이구미 두 개)과 바로 즉시 받을 수 있는 한 개의 보상(포도 나이구이 한 개) 중에서 기다려서 두 개의 마이구미를 받겠다고 선택한 아동에게는 기다리는 동안 보상에 대해 종결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지시 또는 비종결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지시 중 어느 한 지시를 주었다. 보상에 대해 종결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조작으로는 아동에게 “(자기 또는 어머니)가 먹을 마이구미는 **쫄깃쫄깃**하고 **새콤달콤**하다”라는 지시를 기다리는 동안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따라하게 하였다. 보상에 대해 비종결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조작으로는 “(자기 또는 어머니)가 받을 마이구미는 **울퉁불퉁**하고 **보라색**이다”하는 지시를 기다리는 동안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따라하게 하였다. 아동이 보상에 대해 생각해야 할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아동에게 기다리는 동안 자신이 보상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야하는지를 물어서 내용을

확인하였다.

기다리는 동안 보상에 대한 종결적 생각이나 비종결적 생각을 계속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실험자는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꼭 실험자가 말한 내용을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점과 기다리는 동안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보상을 보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실험자는 옆방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 실험실을 떠나야 한다는 것과 아동이 기다리다가 그만두고 싶으면 언제라도 종을 치면 실험자가 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해준 후에 그림찾기 놀이책을 들고서 밖으로 나왔다.

아동은 삼면이 칸막이로 막혀져 있고 보상이 놓여져 있는 책상 앞에 앉은 상태로 실험실에 혼자 남아 있었다. 실험자는 수시로 아동의 등뒤에 있는 창문을 통해 아동을 관찰하였는데, 기다리는 동안 의자에서 일어나 움직이는 아동은 한 명도 없었다.

실험자는 아동이 중간에 종을 친 후 또는 30분 후에 다시 실험실로 들어갔다. 실험자가 실험실에 다시 돌아온 후에 아동에게 두 가지 사후 질문을 하였다. 한 질문은 기다리면서 아동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실험자가 보상에 대해 생각하도록 지시한 내용대로 아동이 보상을 생각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나머지 한 질문은 왜 증도에서 그만 두었는지 또는 왜 끝까지 기다렸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이것은 아동들이 기다리는 것과 보상과의 연계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아동들로 하여금 기다리는 것을 힘들게 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탐색해보기 위한 것이었다. 이 두 가지 질문이 끝난 후에 실험자는 아동과 함께 그림찾기를 5분 정도하면서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이 받은 보상을 먹게 한 후에 교실로 돌려 보냈다.

## 결 과

결과 분석에는 62명의 피험자 중에서 14명의 자료를 제외한 48명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본 분석에서 제외한 14명의 자료는 즉각 보상 한 개를 선택한 아동 4명, 기다리는 것과 보상과의 연계성을 이해하지 못한 아동 4명, 지시를 생각하지 않았던 아동 5명, 그리고 제시된 보상을 기다리면서 먹어버린 아동 1명의 자료였다. 즉각 보상을 선택한 4명의 아동 중 2명은 자기 보상 취득 조건의 아동이었고, 나머지 2명은 어머니 보상을 취득 조건의 아동이었다. 기다리는 것과 보상의 연계성을 이해하지 못한 아동 4명은 자기 보상을 종결적으로 생각하게 한 조건, 자기 보상을 비종결적으로 생각하게 한 조건, 어머니 보상을 종결적으로 생각하게 한 조건, 그리고 어머니 보상을 비종결적으로 생각하게 한 조건 모두에서 각각 1명씩이었다. 지시를 생각하지 않았던 아동 5명은 자기 보상을 비종결적으로 생각하게 한 조건에서 3명, 어머니 보상을 비종결적으로 생각하게 한 조건에서 2명이었다.

각 조건별 남,여 12명의 자료를 사전 분석한

표 1. 보상 수혜자와 보상에 대한 생각 유형에 따른 평균 지연시간 (단위: 분)

		보상에 대한 생각 유형	
		종결적 생각	비종결적 생각
보 상 수 혜 자	자기	13.50a (5.68)	22.25 (9.29)
	어머니	25.42 (7.61)	22.83 (8.67)

a. 최대지연 시간은 30 분임.  
괄호안은 표준편차임.

결과, 성(sex)의 주 효과와 성과 두 처치 조건 간의 어떠한 상호작용 효과도 없었으므로 각 조건별 남,여 자료를 합쳐서 자료분석을 하였다. 보상 수혜자와 보상에 대한 생각 유형에 따른 지연시간의 평균이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취학전 아동들은 보상의 수혜자가 자기일 경우보다는 보상의 수혜자가 어머니일 경우에 더 오래 기다렸다( $F(1,44)=7.45, p < .05$ ). 그리고 보상에 대한 생각 유형은 보상 수혜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랐다( $F(1,44)=6.12, p < .05$ ).

보상의 수혜자와 보상에 대한 생각 유형 간의 상호작용 효과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단순 주 효과를 분석한 결과, 보상의 수혜자가 자기인 경우에는 보상에 대해 종결적으로 생각하게 한 조건의 아동들이 보상에 대해 비종결적으로 생각하게 한 조건의 아동들보다 더 짧게 기다렸다( $F(1,44)=7.28, p < .05$ ). 이 결과는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했던 Mischel과 Baker(197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반면에 보상의 수혜자가 어머니인 경우에는 아동들은 보상을 종결적으로 생각하게 하거나 비종결적으로 생각하게 하거나 상관없이 오래 기다렸다( $F(1,44)=0.64, ns$ )

본 연구의 상황을 보면, 아동이 많은 보상을 얻게되는 것은 실험자가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린 경우에 한해서이다. 기다리다가 증도에 그만둔 경우에는 기다린 시간에 상관없이 아동들은 결코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미래의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해 욕구만족을 지연하는 것을 자기통제로 본다면, 실험자가 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린 사람의 수가 보다 적합한 자기통제의 지표가 될 것이다. 표 2에 각 조건별로 끝까지 기다린 아동의 수와 증간에 그만둔 아동의 수를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표 2를 보면, 보상의 수혜자가 자기인 경우에는 끝까지 기다려서 두 개의 보상을 받은 아동은

표 2. 각 조건별 끝까지 기다린 아동의 수와 중도에 그만둔 아동의 수

처치조건	중도에	
	끝까지 기다린 아동	그만둔 아동
자기보상- 종결적 생각	0	12
자기보상- 비종결적 생각	3	9
어머니보상- 종결적 생각	7	5
어머니보상- 비종결적 생각	5	7
전 체	15	33

24명 중 3명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3명은 자기가 받을 보상에 대해 비종결적으로 생각하게 했던 조건에 속했던 아동들이었다. 보상의 수혜자가 어머니일 경우에는 24명 중 12명의 아동이 끝까지 기다렸다. 그 12명은 보상에 대해 종결적으로 생각하게 한 조건의 아동 7명과 보상에 대해 비종결적으로 생각하게 한 조건의 아동 5명이었다. 네 조건간에 끝까지(30분) 기다린 아동의 수와 중도에 그만둔 아동의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있는 차이가 있었다( $X^2(3)=10.38, p < .05$ ). 끝까지 기다리느냐 아니면 중도에 그만두느냐를, 보상 수혜자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보상의 수혜자가 자신인 경우 보다는 보상 수혜자가 어머니일 경우에 끝까지 기다린 아동이 더 많았다( $X^2(1)=7.85, p < .05$ ).

기다리는 동안 각 조건에서의 아동들이 기다림을 중지하였던 시간적인 추세를 참고적으로 살펴보면, 보상의 수혜자가 자신이면서 보상에 대해 종결적으로 생각하게 한 조건의 아동들은 20분

내에 거의 대부분이 기다림을 중지하였다(12명 중에서 11명). 그리고 보상의 수혜자가 자기이면서 보상에 대해 비종결적으로 생각하게 한 조건의 아동들은 20분까지는 보상의 수혜자가 어머니인 경우의 아동들과 유사하게 소수의 아동들만이 기다림을 중지하였으나, 20분이 지나면서부터는 보상의 수혜자가 어머니인 조건의 아동들에 비하여 중도에 그만두는 아동들의 수가 조금 많았다.

## 논 의

오래 기다릴수록 자기에게 더 많은 보상이 생기는 경우와 오래 기다릴수록 자기 어머니에게 더 많은 보상이 생기는 경우에서의 기다리는 것(육구만족의 지연)으로 취학전 아동의 자기통제 정도를 살펴본 결과, 보상의 수혜자가 자기일 때 보다 보상의 수혜자가 어머니일 때 취학전 아동들은 더 오래 기다렸다. 이 결과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보상의 수혜자가 자기일 때에는 보상에 대해 종결적으로 생각하게 한 조건보다 보상에 대해 비종결적으로 생각하게 한 조건에서 아동들은 더 오래 기다렸다. 이 결과는 Mischel과 Baker(1975)의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상의 수혜자가 자신일 때에는 자기 통제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즉, 아동이 받을 보상이 자기의 것일 때 기다리면 더 많은 보상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에 대한 종결적 생각으로 인해 보상을 먹고 싶은 충동이 각성되면 어린 아동들은 기다려서 더 많은 보상을 얻기보다는 작지만 당장에 얻을 수 있는 작은 보상이라도 가지려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보상의 수혜자가 어머니일 때는 그 양상이 다르다.

보상의 수혜자가 어머니일 경우에는 기다리는 동안 어머니가 받을 보상에 대해서 종결적으로

생각하게 한 것이 결코 기다림을 방해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받을 보상에 대해 종결적으로 생각하게 한 경우나 어머니가 받을 보상에 대해 비종결적으로 생각하게 한 경우 모두 어린 아동들은 오래까지 기다렸다. 이 결과는 자기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람인 어머니에게 생기는 득을 위한 자기통제가 적어도 자신에게 생기는 득을 위한 자기통제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어머니가 받을 보상에 주목하게 하거나 자기가 받을 보상에 주목하게 한 본 연구에서 보상의 수혜자에 따라 욕구만족의 자연 효과가 차이가 난 것에는 자신이 받을 보상에 대해 종결적으로 생각하게 한 조건에서 끝까지 기다린 아동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만 본다면, 어머니에게 생기는 득을 위한 자기통제가 자기에게 생기는 득을 위한 자기통제보다 더 우세하다는 결론보다는 자기에게 생기는 득을 위한 자기통제에 한계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이다.

그러나 보상에 대한 주목 양상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보면 보상의 수혜자가 자신인 경우(24명 중에서 3명)보다 보상 수혜자가 어머니인 경우(24명 중에서 12명)에 끝까지 기다린 아동이 더 많았다. 신체적으로 힘들고 무거운 과제를 오래 수행하는 데에서도 아동들은 자신에게 보상이 많이 생기는 경우보다는 어머니에게 보상이 많이 생기는 경우에 그 과제를 더 오래 수행하였던 결과(정영숙과 김은경, 원고)와 본 연구의 결과를 함께 고려해 볼 때, 개인이 좋아하는 타인(예: 어머니)에게 생기는 득은 개인으로 하여금 신체적 고통을 참아내게 하고, 욕구를 억제하게 하는 등의 자기통제를 증진시키는 강력한 원천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보상의 수혜자가 자신인 경우에는 종결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이 욕구만족의 지연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어머니가 받을 보상에 대해 종결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은 욕구만족의 지연을 약화시키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한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것은 보상에 대해 종결적으로 생각하게 했을 때 자신의 보상과 어머니의 보상이 먹고 싶은 충동을 고조시키는 정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실험에서 보상에 대해 종결적으로 생각하도록 한 조건은 어린 아동들이 마이구이(향기가 나는 과자임)를 직접 눈 앞에 두고서 "어머니가 먹을 마이구이는 새콤달콤하다" 또는 "내가 먹을 마이구이는 새콤달콤하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었다. 보상의 수혜자가 어머니이든 아동 자신이든 아동의 눈 앞에 향기나는 과자가 직접 제시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새콤달콤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두 조건 간에 먹고 싶은 충동에 큰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어머니의 보상에 대해 종결적으로 생각하게 했을 때 아동들이 오래 기다린 것이 단지 먹고 싶은 충동이 적게 일어나서만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실험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중도에서 기다림을 그만둔 아동들이 사후 질문에서 기다리지 못했던 이유로 답변한 내용이 표 3에 정리되어 있다. 기다리면 어머니에게 더 많은 보상이 생기는 경우에 실험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둔 아동들 12명 중 10명이 지루해서 그만두었다고 대답하였다. 이것은 먹고 싶은 충동이 없다하더라도 끔찍하지 않은채 실험자가 돌아올 때까지 계속 기다린다는 것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늘상 움직이기를 좋아하는 어린 아동들에게는 대단히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을 암시해 준다.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것에서 오는 지루함도 먹고 싶은 충동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기다림을 방해하는 강력한 방해요인이 될 것으로 짐



표 3. 증도에 그만둔 아동들이 사후면담에서 기다리지 못했던 이유로 대답한 유형의 빈도

	보상의 수혜자			
	자 기		어머니	
	보상에 대한 생각	보상에 대한 생각	보상에 대한 생각	보상에 대한 생각
기다리지 못한 이유	종결적 (n=12)a	비종결적 (n=9)	종결적 (n=5)	비종결적 (n=7)
보상을 먹고싶어서	8	1	1	0
기다림이 지루해서	3	8	3	7
먹고도 싫고 지루해서	1		1	

a. 각 조건에서 증도에 그만둔 아동의 전체 수

작된다. 그렇다면 자기가 받을 보상에 대해 종결적으로 생각하게 했을 때보다 어머니가 받을 보상에 대해 종결적으로 생각하게 했을 때 아동들이 더 오래 기다린 것에는 어머니에게 생기는 더 많은 보상이 아동으로 하여금 기다림을 증진시키는 강력한 유인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더라도 어머니에게 선물이 생기는 경우에는 자신에게 선물이 생기는 경우보다 그 일을 자신에게 더 중요하고 더 유익하며 더 꼭 해야 한다고 지각하고, 기분이 더 유쾌하다고 보고하고,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도 덜 혐오적으로 지각한 결과(정영숙과 조용희, 원고)는 이런 가능성을 뒷받침해 준다.

자기통제는 아동들이 걷고 움직일 수 있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부모라는 사람을 통해 시작되는 사회화 훈련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좀 더 어린 아동들을 대상으로 어머니에게 생기는 득

을 위해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거나 유혹을 물리치는 효과에 대한 발달적인 추세를 살피는 것도 흥미로운 일일 것이다. 아울러 아동이 위하려는 타인의 범위를 어머니 뿐만 아니라 아버지, 친구 등 여러 대상으로 확장하여 사람들이 스스로를 통제하는 사회적 원천들을 경험적으로 확인한다면, 실제 생활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정영숙.(1994). 어머니에 대한 배려가 자기통제에 미치는 효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정영숙.(1984). 욕구만족 지연 상황에서 보상의 제시방법이 보상가치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 청구 논문.
- 정영숙, 김은경. (원고). 보상수혜자에 따른 취학전 아동의 자기통제 효과의 차이.(준비중)
- 정영숙, 조용희.(원고). 어머니의 안녕에 대한 기대가 정서와 자기 평가에 미치는 영향.(준비중)
- Amsel,A.(1958). The role of frustrative nonreward in noncontinuous reward situation. *Psychology Bulletin*, 55, 102-119.
- Eisenberger,R. & Adornetto, M.(1986). Generalized self-control of delay and effor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029-1031.
- Erikson,E.H.(1963).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 Hartig,M. & Kanfer,F.(1973). The role of verbal self-instruction in children's

- resistance to tempt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5, 259–267.
- Kanfer, F.H., Stifter, E., & Morris, S.J. (1981). Self-control and altruism: Delay of gratification for another. *Child Development*, 52, 674–682.
- Kanfer, F.H., & Zich, J. (1974). Self-control training: the effects of external control on children's resistance to tempt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10, 108–115.
- Karniol, R., & Miller, D.T. (1983). Why not wait?: A cognitive model of self-imposed termi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45, 935–942.
- Miller, D.T., Weinstein, S.M., & Karniol, R. (1978). Effects of age and self-vebalization on children's ability to delay gratific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15, 569–570.
- Mischel, W. (1974). Processes in delay of gratification.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7 pp. 249–292). New York: Academic Press.
- Mischel, W. (1981). Metacognition and the rule of delay. In J.H. Flavell, & L. Ross (Eds.), *Social Cognitive Development: Frontier and possible futures* (pp. 240–271). Massachuset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ischel, W. & Baker, N. (1975). Cognitive appraisals and transformations in delay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31, 254–261.
- Mischel, W., & Ebbesen, E.B. (1970). Attention in delay of gra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6, 329–337.
- Mischel, W., Ebbesen, E.B., & Zeiss, A.R. (1972). Cognitive and attentional mechanisms in delay of gra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1, 204–218.
- Mischel, W., & Moore, B. (1973). Effects of attention to symbolically-presented rewards upon self 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8, 172–179.
- Mischel, W. & Moore, B. (1980). The role of ideation in voluntary delay for symbolically presented reward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4, 211–221.
- Mischel, W. & Patterson, C.J. (1976). Substantive and structural elements of effective plans for self-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4, 942–950.
- Mischel, W., Shoda, Y., & Rodriguez, M.L. (1989). Delay of gratification in children. *Science*, 244, 933–938.
- Mischel, W., & Underwood, B. (1974). Instrumental ideation in delay of gratification. *Child Development*, 45, 1083–1088.
- Moore, B., Mischel, W., & Zeiss, A.R. (1976). Comparative effects of the reward stimulus and its cognitive representation in voluntary dela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4, 419–424.
- Mussen, P., & Eisenberg-Berg, N. (1977). *Roots of caring, sharing, and helping.*

- San Francisco: Freedman and Company.
- Schack, M.L. & Massari, D.J. (1973). Effects of temporal aids and frustration on delay of gratific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8, 168-171.
- Schwarz, J.C., Schrager, J.B., & Lyons, A.E. (1983). Delay of gratification by preschoolers: Evidence for the validity of the choice paradigm. *Child Development*, 54, 620-625.
- Skinner, B.F. (1953). *Science and human behavior*. New York: Macmillan.
- Toner, I.J., Moore, L.P., & Emmons, B.A. (1980). The effect of being labeled on subsequent self-control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51, 618-621.
- Toner, I.J., & Smith, R.A. (1977). Age and overt verbalization in delay-maintenance behavior in children's delay of gratific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24, 123-128.
- Tuckman, B.W. & Sexton, T.L. (1990). The relation between self-beliefs and self-regulated performance.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5, 465-472.
- Yates, B.T., & Mischel, W. (1979). Young children's preferred attentional strategies for delaying gratification.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37, 286-300.
- Yates, G.C.R., Lippett, R.M.K., & Yates, S. M. (1981). The effects of age, positive affect induction, and instructions on children's delay of gratific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32, 169-180.
- Zahn-Waxler, C., Radke-Yarrow, M., Wagner, E., & Chapman, M. (1992). Development of concern for other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126-136.

## **Preschool Children's Delay of Gratification as a Function of Reward—Recipients**

Young Sook Chong & Ja Kyoung Son

Department of Psychology, Pusa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xamine the effect of young children's delay of gratification for their own benefit versus that of for their mother's benefit under Mischel & Baker(1975)'s delay of gratification paradigm. Half of 48 kindergarten children chose between immediate small reward and delayed large one for themselves and the others chose between immediate small reward and delayed large one for their mother. Children who had chosen delayed large reward for themselves or their mother were separately divided into two groups by the type of ideation for reward: consummatory thinking(e.g., reward is delicious) versus nonconsummatory thinking(e.g., reward's color is violet).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that reward—recipient was himself/herself, children who were asked to have consummatory ideation of reward delayed shorter than those who were asked to nonconsummatory ideation of it. Second, when reward—recipient was his/her mother, the children delayed so long independent of ideation conditions. These findings showed that young children's delay of gratification for their mother's benefit were better or at least as the same as that of for their own benefit. It was suggested that giving benefit to mother be an alternative powerful motivator enhancing self—control even in younger children.